

전주 팔복동, 스마트 그린도시로 바뀐다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 100억원 확보... 녹색 탄소 ICT 마을숲·스마트 그린에너지 마을 조성 추진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서 비산먼지 차단 숲과 생활 숲길을 걷고 공유 전 기차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녹색 생태계가 구축된다.

전주시는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7억 원을 들여 '종합선도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지역이 주도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팔복동 1가 288-2번지 일원(25만5,228㎡)에서 '스마트 탄소그리드 기반 팔복동 Net-Zero 타운'을 비전으로 '녹색 탄소 ICT 마을숲'과 '스마트 그린에너지 마을' 조성을 기본목표로 사업에 나선다.

녹색 탄소 ICT 마을숲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주거지 사이 산업용 도로 395m 구간을 녹화벽(ICT 완충숲)을 설치해 도로와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사업을 포함해 ▲ICT 생활숲길 조성 ▲스마트 녹색원터 구축 ▲디지털 숲 지도 구축 ▲빛물활용 자동살수시스템 운영 등이 추진된다.

스마트 그린에너지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공유바이크 공급 사업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에너지저장형) 설치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육상·벽녹화) ▲스마트 능동형 쓰레기 배출시설 설치 등이 있다.

더불어 시는 팔복동 지역의 노후주택이 60% 이상인 점을 고려해 노후주택에 단열, 이중창, 태양광, 저녹스보



29일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팔복동 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종합선도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일러, 누수감지 시스템 등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틈새투수블럭, 단열시설, 탄소발열의자 등 78억 원가량의 탄소제품을 써 지역 탄소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304억2,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7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온실가스를 줄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366톤으로, 20년 생 소나무 8만2,292그루를 심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 도시, 녹지, 기후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그린도시 TF팀을 구성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왔다. 또 그린뉴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청원원을 대상으로 그린뉴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팔복동 지역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선정됐다. 이를 통해 빈집밀집구역을 중심으로

로 공공임대주택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이 조성되고, 골목길 정비, 그린 집수리 사업 등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산업단지 배후거주지로서 환경적 불평등을 받은 팔복동은 더 이상 '이사 가고 싶은 마을'이 아닌 '이사 오고 싶은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며 "도시의 녹색전환을 선도할 전주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노인복지 향상 공로 감사패 수상

조상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김승수 시장으로부터 받아

조상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이 29일 퇴임을 앞두고 노인일자리를 창출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 센터장은 지난 2016년부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위한 취업 알선 및 재취업 강화사업 ▲노인일자리를 위한 취업 알선 및 재취업 강화사업 ▲노인일자리를 위한 취업 알선 및 재취업 강화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조 센터장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노인

들에게 읽을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 노년의 꿈' 1·2호를 발행했으며, 제1회 전주 실버영화제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왔다.

조상진 센터장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해 행복과 보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판 전달

전주시보건소, 늘푸른요양병원·평화동우체국 등 6곳 지정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늘푸른요양병원 등 6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기관)로 지정해 현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치매극복선도단체(기관)는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교육을 받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따뜻한 동반자인 치매파트너를 말하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단체,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이 지정된다.

이번에 치매극복선도단체(기관)로 지정받은 곳은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전주농협 평화지점 ▲전주평화동우체국 ▲의료법인생명의료재단 늘푸른요양병원 ▲풍남동 주민센터 ▲전주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등이다.

늘푸른요양병원의 경우 치매환자 발

굴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풍남동 주민센터와 평화동우체국, 평화지구대 등은 기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민 접점에서 치매 예방 및 치매사업 홍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전주시보건소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다양한 사회 주체를 치매극복선도단체(기관)로 지정해 치매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미정 전주시 치매안심과장은 "선도단체(기관)와 협력해 치매가 있어도 걱정 없는 따뜻한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학교, 도서관, 단체 등은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예방 '앞장'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포대상담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센터는 3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을 돕는 포대상담과 교육을 했다. 특히 서곡초등학교와 근영중학교, 유일여고에서는 포대상담 심화교육을 하면서 엽서쓰기 캠페인 등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센터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비대면 상담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 624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규모 특강 및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김영덕 운전원,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왕중왕 선정

김영덕 호남고속 운전원이 '2020년도 전주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29일 시내버스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진 시내버스 문화 정착에 앞장서온 5명의 기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에는 성진여객의 이상준 씨와 전일여객의 박민철·한종호 씨, 호남고속의 김영덕·차광찬 씨가 선정됐다. 표창을 받은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에게는 시상품과 친절·안전기사 엠블럼 패치가 지급된다.

이 가운데 왕중왕에는 모범적인 운행은 물론 승객들과 공감, 소통하려는 노력을 펼친 김영덕 호남고속 운전원이 뽑혔다.

시는 친절·안전기사 표창을 통해 운전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승객들이 믿음을 갖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